

『황제내경』의 체열 분포 진단 방법 연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기왕 *

A study on the methods of regional body temperature palpation in *Huangdineijing*

Kim Kiwang *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s : Though regional body temperature palpation is one of well stylized diagnosis methods in *Huangdineijing*, it has not been thoroughly reconstructed. So I tried to find and reconstruct the methods in *Huangdineijing* to diagnose regional body temperature as a objective sign.

Material and Methods : *Huangdineijing*(in *Zhonghuayidian*) was used for text search. “Heat(熱)”, “Cold and Heat(寒熱)”, “Cold and Warmth(寒溫)”, “Root and Terminal(本末)” was used as searching keywords. By classifying and analysing searched sentences I reconstructed the original palpation methods.

Results : Two types of regional temperature palpation method was found in *Huangdineijing*. One is the method palpating the Root(origin) points and Terminal points of the meridians, while the other method is that palpating the skin in anterior side of forearm. It was proved that they had been collaboratively used to diagnose the diseases related to meridians and it's collaterals.

Conclusions :In the era of *Huangdineijing*, there was at least two types of regional temperature palpation method and their clinical usage was in complementary relations.

Key Words : Body palpation, Distribution of body heat, *Huangdineijing*, Cubit skin examination, Root and Terminal

I. 서 론

* Corresponding Author : Kim Kiwang, Prof.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Tel : +82-11-340-2712. Office)+82-51-510-8466
Email : kimgiwang@hanmail.net
Received(2 February 2017), Revised(15 February 2017),
Accepted(16 February 2017)

오늘날 한의 임상에서 체열의 분포에 대한 진단은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고, 적외선체열진단 기기의 보급과 함께 체열 분포의 진단 역시 영상진단의 한 가지 형태로서 정량화, 객관화되는 발전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체열의 부위별 분포 양상을 진단에 응용한 사례는 한의학 원전에도 보인

다.

오늘날의 한의 진단에서 체열의 국소적 분포를 확인하는 행위는, 비록 적외선체열진단 기술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응용이 활발히 모색되고는 있으나 정규 교육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진단법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결과 『황제내경』에는 매우 정형화된 국소 체열 진단 방법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II. 재료와 방법

『황제내경』 전문을 대상으로 “열(熱)”, “한열(寒熱)”, “한온(寒溫)”, “본말(本末)”을 검색어로 하여¹⁾ 이 말이 포함된 문장을 모두 찾아 국소체열 진단을 설명하는 문장이라 생각되는 것을 모은 후 내용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국소 체열 진단의 원형을 복원하였다. 『황제내경』 원문은 『중화의전』에서 인용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황제내경소문교석』과 『영추경교석』의 교감 내용을 참고하였다.

III. 결 과

『황제내경·영추·사객(邪客)』에 의하면 침 치료 전에 수행해야 하는 진단 행위로서 다음의 것들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첫째, 경맥 기시·중지 부위, 즉 소위 본말(本末) 부위의 맥상과 체온, 둘째, 전완 전면부, 즉 소위 척(尺) 부위의 근육·피부 상태 및 체온, 셋째, 눈의 색깔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²⁾. 여기서 언급한 본말 부위의 체열

진단과 척 부위의 체열 진단은 『황제내경』 체열 분포 진단법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며, 경맥의 허실은 맥구(脈口)를 포함한 본말 부위의 차고 더움으로, 낙맥의 허실은 척 부위의 차고 더움으로 나타난다³⁾. 또한 사기가 경맥을 침범할 때는 본말 부위의 체온이 오르고⁴⁾ 사기가 낙맥으로부터 들어올 때는 본말 부위의 체온이 승강을 반복하며 변동한다⁵⁾.

정상인은 본말 부위의 체온이 균등하나⁶⁾ 사기가 침범하면 그 경맥의 본말 부위에 체온 변동이 나타난다⁷⁾. 또한 병이 나으면 본말 부위의 체온도 정상화된다⁸⁾.

침 치료시에는 본말 부위의 체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⁹⁾ 이에 근거하여 치료의 완급을 조절하며¹⁰⁾ 침 놓고 나서도 자침 부위(대개 본말 부위)의

鍼縱舍奈何? 岐伯曰: 必先明知十二經脈之本末皮膚之寒熱, 脈之盛衰滑澹. 其脈滑而盛者, 病日進; 虛而細者, 久以持; 大以澹者, 爲痛痺; 陰陽如一者, 病難治. 其本末尚熱者, 病尚在, 其熱已衰者, 其病亦去矣. 持其尺, 察其肉之堅脆, 小大, 滑澹, 寒溫, 燥濕. 因視目之五色, 以知五藏而決死生. 視其血脈, 察其色, 以知其寒熱痛痺.”

1) 사전 예비연구에서 “온(溫)”자 단독으로 나타난 예나 “열(熱)”에 대비되는 문자인 “한(寒)”, “냉(冷)”이 포함된 문장도 검토하였으나 국소 체열 진단법과 관련된 문장은 모두 위의 검색어를 포함한 표현에서만 등장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열”, “한열”, “한온”만을 유효한 검색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사전 예비연구에서, 본말과 동의어라 볼 수 있는 “표본(標本)”이나 유사한 개념을 표현한 용어인 “근결(根結)”을 검색어로 하여 『황제내경』 전문을 검색하였을 경우 국소 체열 진단법과 관련된 기술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본말”만을 유효한 검색 대상으로 제시하였다.

2)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靈樞集注(邪客). “黃帝曰: 持

3)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素問. “絡氣不足, 經氣有餘者, 脈口熱而尺寒也. …… 經虛絡滿者, 尺熱滿脈口寒澹也.”(通評虛實論)

4)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靈樞集注. “脈之卒然動者, 皆邪氣居之, 留于本末. 不寒則熱, …….”(經脈)

5)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素問. “帝曰: 候氣奈何? 岐伯曰: 夫邪去絡入於經也, 舍於血脈之中, 其寒溫未相得, 如涌波之起也, 時來時去, 故不常在.”(離合眞邪論)

6)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靈樞集注. “不病者, …… 本末之寒溫相守司也, …… 是謂平人.”(終始)

7)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靈樞集注. “脈之卒然動者, 皆邪氣居之, 留于本末. 不寒則熱, 不堅則陷且空, 不與衆同, 是以知其何脈之動也.”(經脈)

8)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靈樞集注. “其本末尚熱者, 病尚在. 其熱已衰者, 其病亦去矣.”(邪客)

9)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靈樞集注. “審於本末, 察其寒熱, 得邪所在, 萬刺不殆.”(官能)

10)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靈樞集注. “爲此諸病, 盛則寫之, 虛則補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下則灸之, 不盛不虛, 以經取之.”(經脈), “氣滿胸中喘息, 取足太陰大指之端, 去爪

Table 1. The two types of regional body temperature palpation methods in *Huangdineijing* - their application scopes and usages.

진단 대상(부위)에 따른 진단법 구분	활용 영역	활용 목적	운용 방법	관련 원문 예
본말 부위의 체열 진단	진단과정에서의 활용	이환 경맥의 판단	각 경맥의 본말 부위의 맥동과 피부 온도를 측정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경맥에 사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 (12경맥편진맥법, 삼부구후맥법에서는 기본적 진단 방법. 인영촌구맥법에서는 맥진 후 재확인 수단으로서 활용)	脈之卒然動者，皆邪氣居之，留于本末，不動則熱，不堅則陷且空，不與衆同，是以知其何脈之動也。(靈樞·經脈) 必審按其本末，察其寒熱，以驗其藏府之病。(靈樞·禁服)
	치료과정에서의 활용	허실 조정 여부의 판단	자침 후 체열이 바뀌어야 허실이 조정된 것으로 판단	“刺虛則實之”者，鍼下熱也，氣實乃熱也；“滿而泄之”者，鍼下寒也，氣虛乃寒也。(素問·鍼解)
		유침 시간 결정	진단 부위의 체온이 높을 때 단시간 유침, 낮을 때는 장시간 유침.	熱則疾之，寒則留之……(靈樞·經脈) 寒則留之，熱則疾之……(靈樞·熱病)
경맥과 낙맥의 허실 비교	본말 부위 체온 진단과 결합하여 운용. 경맥이 실하면 본말 부위가 고온, 낙맥이 실하면 척부가 고온.	絡氣不足，經氣有餘者，脈口熱而尺寒也。(素問·通評虛實論)		
척부(전완 전면부)의 체열 진단	진단과정에서의 활용	전신 질환의 한열 판단	척부가 고온이면 온병(躁脈 동반시), 저온이면 설사(細脈 동반시).	人一呼脈三動，一吸脈三動而躁，尺熱曰病溫……尺寒脈細，謂之後泄。(素問·平人氣象論) 尺膚熱甚，脈盛躁者，病溫也……尺膚寒，其脈小者，泄、少氣。(靈樞·論疾診尺)
		척부 상응 부위의 체온 이상 진단	손바닥 및 전완부의 국소-전체 상응 관계에 따라 신체 각 부분의 체온 이상 질환을 진단.	肘前獨熱者，膺前熱；肘後獨熱者，肩背熱。(靈樞·論疾診尺)

체열을 확인해야 한다¹¹⁾.

본말 부위의 체열 측진은 소위 경맥편진맥법(經脈遍診脈法)과 함께 창시된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삼부구후맥법(三部九候脈法)을 이용하였던 집단 역시 9개 맥동처에 대해 유사한 방식의 체열 측진을 하였고¹²⁾ 인영촌구맥법(人迎寸口脈法)을 이용하였던 집단도, 본말 부위의 맥진을 인영·촌구의 맥진으로 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말 부위의 체열 측진은 맥진 결과의 재확인 수단으로 남겨두었다¹³⁾. 또한

경근에 대한 진단에서도 일부 경근에 대해서는 체열 측진을 하였음¹⁴⁾을 알 수 있다.

본말 부위의 체열 측진과 마찬가지로 척 부위(전완 전면 부위)의 체열 측진도 중요한 진단 방법이었다¹⁵⁾. 척 부위의 체열 측진에는 전완 전면 피부, 즉 척부(尺膚)에 대한 전반적 측진과 주후(肘後)로부터 장중(掌中)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에 대한 세부적 진단이 포함된다. 척부(尺膚)가 뜨거우면 대체로 전신적 발열¹⁶⁾, 척부가 차가우면 대체로 설사 증상¹⁷⁾이

甲如菴葉，寒則留之，熱則疾之，氣下乃止。”(熱病)

- 11)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素問. “刺虛則實之”者，鍼下熱也，氣實乃熱也；“滿而泄之”者，鍼下寒也，氣虛乃寒也. …… “言實與虛者，寒溫氣多少也. …… ‘刺實須其虛’者，留鍼陰氣隆至，乃去鍼也. ‘刺虛須其實’者，陽氣隆至，鍼下熱，乃去鍼也.”(鍼解)
- 12)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素問. “帝曰：何以知病之所在？岐伯曰：察九候，…… 獨熱者病，獨寒者病，獨陷下者病.”(三部九候論)
- 13)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靈樞集注. “人迎大一倍于寸口，病在足少陽，一倍而躁，在手少陽. …… 必審按其本末，察其寒熱，以驗其藏府之病. …… 寸口大于人迎一倍，

病在足厥陰，一倍而躁，在手心主. …… 必審察其本末之寒溫，以驗其藏府之病.”(禁服)

- 14)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靈樞集注. “足陽明之筋，其病…… 卒口僻，急者，目不合 熱則筋縱，目不開. 頰筋有寒，則急引頰移口 有熱，則筋弛縱，緩不勝收，故僻. …… 手少陰之筋，…… 經筋之病：寒則反折筋急，熱則筋弛縱不收，陰痿不用.”(經筋)
- 15)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素問. “診有大方：…… 循尺滑瀉，寒溫之意，視其大小，合之病能，逆從以得，復知病名，診可十全.”(方盛衰論)
- 16)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 黃帝內經素問. “人一呼脈三動，一吸脈三動而躁，尺熱曰病溫 尺不熱，脈滑曰病風 脈瀉曰瘧，

잘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팔꿈치 뒤로부터 손바닥에 이르는 부위의 국소적 체열 이상은 이에 대응하는 신체 부위의 증상을 시사한다¹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Table 1과 같다.

IV. 고찰

이처럼 본말 부위와 척 부위의 체열 진단이 『황제내경』의 여러 편에 수록되어 있음에도 그 동안 이러한 진단법이 주목받지 못하였던 것은 우선 ‘본말’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척’에 대한 해석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찍이 황보밀(皇甫密, 215~282)의 『갑을경(甲乙經)』에서도 “본말지한온(本末之寒溫)”이란 문구가 다른 표현으로 치환¹⁹⁾되어 있어 본말 부위의 해석에 오류가 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양상선(楊上善, 575?~670?)은 『황제내경태소(黃帝內經太素)』에서 본말을 인영(人迎, 경동맥 박동 부위)과 촌구(寸口, 요골동맥 박동 부위)로 해석²⁰⁾한 바 있고 현대의 『

황제내경』 번역서 및 주석서에도 본말을 ‘일의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예가 자주 나타난다²¹⁾. 이러한 오류는 황룡상(黃龍祥, 1959~)의 지적²²⁾에 의해 교정되어 본말이 각 경맥의 기시·중지 부위라는 해석²³⁾이 대두되게 되었고, 이 부위의 체열 진단 방법도 재구성될 수 있었다. 한편 『황제내경』의 「평인기상론」, 「맥요정미론」 등에 등장하는 ‘척(尺)’이란 말을 맥진 부위로서의 척(요골동맥의 근위부)으로 해석하는 예가 많아 이들 문헌에 수록된 전완 전면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촉진 방법을 온전히 재구성할 수 없었다. 이 점은 일본 의가 단바 모토야스(丹波元簡, 1715~1810)의 『소문지(素問識)』(1806)에서 지적되었다²⁴⁾. 이로써 척 부위의 체열 진단법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도 바른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말 부위의 체열 진단법과 척부(尺膚)의 체열 진단법을 통합적인 구도에서 재구성한 예는 없었다. 본 논고에서는 본말 부위의 체온과 척부의 체온이 침 치료 전에 확인해야 할 기본적 진단 대상이었다는 점과, 본말 부위의 한열은 해당 경맥의 허실을 반영하고 척부의 한열은 낙맥의 허실과 척부 각 부위에 상응하는 신체 각 부분의 한성·열성 증상 및 전신적 한성·열성 증상에 대응됨을 밝혔다.

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황제내경』의 국소 체열 진단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 즉 경맥 기시·중지 부위의 체열을 확인하는 방법과 전완 전면부의 체열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음을 알았다.

…… 脈尺粗常熱者，謂之熱中。”(平人氣象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中華醫典[CD-ROM]。上海。湖南電子音像出版社。2003。黃帝內經靈樞集注“尺膚熱甚，脈盛躁者，病溫也；其脈盛而滑者，病且出也。”(論疾診尺)
17) 湖南電子音像出版社。中華醫典[CD-ROM]。上海。湖南電子音像出版社。2003。黃帝內經素問。“尺寒脈細，謂之後泄。(平人氣象論)
湖南電子音像出版社。中華醫典[CD-ROM]。上海。湖南電子音像出版社。2003。黃帝內經靈樞集注。“尺膚寒，其脈小者，泄，少氣。”(論疾診尺)
18) 湖南電子音像出版社。中華醫典[CD-ROM]。上海。湖南電子音像出版社。2003。黃帝內經靈樞集注。“肘所獨熱者，腰以上熱；手所獨熱者，腰以下熱。肘前獨熱者，膺前熱；肘後獨熱者，肩背熱。臂中獨熱者，腰腹熱；肘後臑以下三四寸熱者，腸中有蟲。掌中熱者，腹中熱；掌中寒者，腹中寒。魚上白肉有青血脈者，胃中有寒。尺炬然熱，人迎大者，當奪血。尺堅大，脈小甚，少氣、恍惚，有加，立死。”(論疾診尺)
19) 湖南電子音像出版社。中華醫典[CD-ROM]。上海。湖南電子音像出版社。2003。甲乙經。“所謂平人者，不病也。不病者，脈口人迎應四時也，上下相應而俱往來也，六經之脈不結動也，本末相遇，寒溫相守司，形肉血氣必相稱也，是謂平人。”(針道終始)
20) 湖南電子音像出版社。中華醫典[CD-ROM]。上海。湖南電子音像出版社。2003。黃帝內經太素。“春夏是陽用事，時溫，人迎爲本也。秋冬是陰用事，時寒，脈口爲本也。其二脈不來相乘，復共保守其位，故曰相守司也。”(診候·人迎脈口診)

21) 예를 들어 다음의 문헌에 보인다. : 郭霽春 主編。黃帝內經詞典。天津。天津科學技術出版社。1991。p.240.
22) 黃龍祥。針灸治療原則的形成及其內涵的演變。針灸臨床雜誌。1994。10(1)。p.1.
23) 본말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고증 결과는 다음 자료를 참조할 것 : 黃龍祥 著。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中國鍼灸學術史大綱。서울, 法仁文化社。2005。p.274。(表 2-1)
24) 湖南電子音像出版社。中華醫典[CD-ROM]。上海。湖南電子音像出版社。2003。素問識。“尺即謂臂內一尺之部分，而決非寸關尺之尺也。寸口分寸關尺三部於《難經》，馬、張諸家，以寸關尺之尺釋之，與經旨差矣。”(卷二·脈要精微論第十七)

이 두 가지 방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침 치료에 있어 맥진에 버금가는 중요성을 가진 진단법이었다고 생각된다.

감사의 말씀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References

1. Shandong University of TCM, Hebei Medical University. Correction and translation of Huangdineijing Suwen.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山東中醫學院, 河北醫學院 編. 黃帝內經素問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 Hebei Medical University. Correction and translation of *Lingshuji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2.
河北醫學院 編.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 Guo AC. Huangdineijing dictionary.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91.
郭靄春 主編. 黃帝內經詞典.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1.
4. Huang LX original work. Park HG, Yoon JH, Kim KW tran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China. Seoul. Bupin Books Co. 200K.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法仁文化社. 2005.
5. Huang LX. Formation and contents change of rules fo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Journal of Clinic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1994. 10(1).
黃龍祥. 針灸治療原則的形成及其內涵的演變.

針灸臨床雜誌. 1994. 10(1).

6. Shen HC, et al.. Discussions on diagnosis in cubit skin. Journal of Nanji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0. 26(6).
沈宏春 外 4人. 論尺膚診法. 南京中醫藥大學學報. 2010. 26(6).
7. Hunan Electronic Sound Image Press. Zhonghuayidian[CD-ROM]. Shanghai. Hunan Electronic Sound Image Press. 2003.
湖南電子音像出版社. 中華醫典[CD-ROM]. 上海.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3.